UC계 대학에 지원하려고 한다면

▲ UC버클리 Sather Gate를 지나는 학생들. 사진=shutterstock

코로나 19로 UC 계열 대학들이 SAT 시험 점수를 받지 않은 이후 UC 대학들의 학생 지원자 수가 대폭 늘었다. '미래교육연구소' (소장 이강렬)에 따르면 UC 전체로는 15%가 증가했고, UCLA는 28%, UC berkeley는 27%가 증가했다.

2023학년도에는 지원자수가 훨씬 더 늘었다. 지난해 UC버클리 지원자는 12만 5,874명이었다. UCLA는 14만5,882명이었다. UCSD는 13만830명이 지원을 했다.

지원자 수가 늘어나면서 당연히 합격률은 낮아졌다. UCLA와 버클리대의 합격률은 각각 10.5%와 12%이며 버클리 내에서도 공대는 6%에 불과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UC는 어떤 기준으로 학생들을 선발할까? 다음은 UC계 대학에서 발표한 전체적 검토를 위한 13가지 고려 사항 목록이다.

1. UC 인증 아너 및 AP 과정에 대한 추가 점수를 포함하여 모든 'a-g' 과정의 학업 성적 평균(GPA)
2. 최소 'a-g' 요구 사항을 초과하는 학점의 수, 내용 및 수행 능력
3. UC가 승인한 아너 과정, 고급 배치 과정, 국제 바칼로레아 상급 과정 및 양도 가능한 대학 과정의 수와 성과
4. 11학년이 끝날 때까지 상위 9%에 드는지 여부 확인
5. 진행 중이거나 계획된 학술 과정의 유형 및 수에 따라 측정되는 12학년의 학업 내용
6. 재학 중인 고등학교에서 개설된 과목들 중 수강한 과목들의 수준과 학업 성취도
7. 하나 이상의 특정 영역에서의 탁월한 성과 여부
8. 모든 학문 분야 중 하나 이상의 특수 프로젝트에서 뛰어난 작업 여부
9. 최근 학업 성적 및 완료되거나 진행 중인 학업 과정의 질과 성취도의 향상도
10. 시각 및 공연 예술, 의사소통 또는 운동 노력과 같은 특정 분야의 특별한 재능, 업적 및 수상. 영어 이외 다른 언어에 대한 입증된 실력, 깊이 있는 학업 및 다른 문화 탐구와 같은 특별한 관심, 특별한 가능성을 보여주는 경험, 중요한 지역 사회 봉사나 학생 정부에 대한 중요한 참여와 같은 리더십, 학교의 학업 성과를 높여 줄 수 있는 경험 또는 성과 여부
11. 고등학교 커리큘럼 맥락에서 또는 특별한 학교 행사, 프로젝트 또는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수행되는 특별한 프로젝트의 완료 여부
12. 장애, 낮은 가족 소득, 대학에 다니는 첫 세대, 불리한 사회 또는 교육 환경, 어려운 개인 및 가족 상황 또는 상황, 난민 지위 또는 베테랑 지위를 포함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는 특별한 상황을 고려한 학업 성취
13. 학교 및 거주지의 위치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면 자신의 현재 스펙으로 합격 가능성을 가늠해 볼 수 있다. 금년에도 역시 UC계 대학에는 많은 학생들이 지원을 할 것이고 이에 따라 합격률이 매우 낮을 것으로 예측된다. 입학 사정 요소를 바탕으로 지원 대학을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NYT "명문대 진학, 부유층에 유리"

아이비리그로 대표되는 미국 명문대학 입시에서 부유층 가정 수험생이 평범한 가정 출신보다 우대를 받는다는 사실이 재확인됐다.

지난달 24일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라지 체티 하버드대 경제학 교수팀이 미국 명문대 입시 결과를 추적한 결과 미국 대학입학자격시험 SAT 점수가 동일할 경우에도 경제력 상위 1% 가정의 수험생은 다른 수험생들보다 합격 가능성이 34%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에서 상위 1%는 연 소득이 61만1천 달러를 넘어야 한다.

초부유층이라고 할 수 있는 상위 0.1% 가정 출신 수험생의 명문대 합격 가능성은 2배 가까이 높았다. 특히 아이비리그 소속 다트머스대의 경우 0.1% 가정 출신 수험생의 합격 가능성은 평범한 가정 출신보다 5배나 높았다. 아이비리그 8개교와 스탠퍼드, 듀크, 매사추세츠공과대학(MIT), 시카고대 등 12개 대학 학생 6명 중 1명은 상위 1% 가정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부유층 가정 자녀들이 유리한 교육환경 때문에 SAT 점수 등 학력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인구 구성 비율상 불균형적인 현상이라는 지적이다.

체티 교수팀은 이 같은 현상의 요인으로 동문 가족이나 고액 기부자에게 혜택을 주는 레거시 입학을 지목했다. 또한 공립학교 출신 수험생보다 사립학교 출신에 가점을 주는 제도도 부유층 자녀에게 유리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펜싱 등 일부 특수 스포츠 종목 특기생의 입학도 부유층 자녀에게 유리하게 작용했다는 것이 체티 교수팀의 분석이다. 이 때문에 SAT나 학업 성적이 동일할 경우에도 부유층 자녀들의 합격률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 Harvard Widener Library 앞을 걸어가는 학생들. 사진=newyorker.com

체티 교수팀은 명문대 입시 과정에서 학력이나 수상 경력, 자기소개서 등 규정된 조건 외에 수험생 가정의 경제력이 미치는 영향을 밝혀내기 위해 1999년부터 2015년까지 대학생 부모의 소득세를 분석했다. 또한 2001년부터 2015년까지 SAT와 ACT 등 대입 자격시험 점수도 분석했다.

체티 교수팀이 12개 대학 외에 다른 대학의 입학 사정 결과도 조사한 결과 뉴욕대(NYU)나 노스웨스턴대 등 명문 사립대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확인됐다.

다만 텍사스주립대나 버지니아주립대 등 공립대학에서는 부유층 자녀가 입학에 더 유리하다는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다. 명문 사립대일수록 수험생 가정의 경제력이 입학에 영향을 미친다는 해석도 가능한 대목이다.

수전 다이너스키 하버드대 경제학 교수는 "이 연구 결과를 보고 내린 결론은 아이비리그 대학은 저소득층 학생들을 원하지 않고, 이 때문에 실제로 저소득층 재학생이 없다는 것" 이라고 말했다.

낱말퍼즐 정답

1 반	찬	■	2 무	한	3 대	■	■
신	■	■	더	■	4 권	5 위	자
반	■	6 일	기	7 장	■	험	■
8 의	9 논	■	■	10 인	내	천	■
■	11 공	백	12 기	■	■	13 만	14 전
■	행	■	15 운	16 현	궁	■	전
17 비	상	18 구	■	수	■	■	반
■	■	19 내	리	막	■	20 억	측

수학전문 • 수천명 가르친 경험으로

- 필요할 때만, 배우고 싶을 때만 배우고
- 배운 시간만큼만 그날 그날 Pay 하면 됨
- 1분 ~ 120분 사이로 (1분이든, 28분이든, 43분이든) 배우고
- 배운 시간만큼 Pay 하면 됨

- 어떤 과목이든지 (Alg 1, Geom, Alg 2, Trig, Precal, AP Cal)
- 어떤 문제든지 99% 보는 즉시
-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고심하지 않고
- 단 1초도 시간 낭비하지 않고 즉시 가르쳐줌

- 1:1 개인지도 (Fullerton Office에 와서 칠판 강의)
- 급한 Test, 중요한 Test, 어려운 Homework
- 특별한 상황에 있는 학생
- 특별한 목적, 목표를 가지고 있는 학생

- Fullerton
- Buena Park

Since 1994
(213)384-2400

혹시 전화 못 받으면 문자 주십시오